

광주·전남 대번영 시대 위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 협력과제 공동 추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연 50억, 2023년부터 출연 합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전남 대번영 시대를 위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발굴된 신규과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산업 협력 확대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기후동맹 선언 등 총 11건이다.

민선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시·도 접경지에 1천만㎡ 규모로 조성해 광주·전남에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핵심 인재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 디지털헬스케어'와 '전남 면역치료'의 시너지 창출로 국가적 미래산업을 견인할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을 위해 실무TF를 구성하고 용역 등을 협의·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해 광주·전남이 새로운 국가발전 축으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나주와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교통망 구축, 광주~완도간, 광주~고흥간, 광주~영암~진도간 고속도로 구축으로 시·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이자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대가 없는 전남에 지역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국립 의과대학을 조속 설립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주·전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및 직류산업을 육성하고 광주·전남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기후동맹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쌀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등 광주·전남 우리쌀 소비촉진에 함께 노력하며,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공동운영으로 관광 브랜드 사업을 상호 협력 추진 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총 37건(신규 11건, 추진 중 과제 26건)의 공동협력과제는 지난 7월14일, 양 시도 실국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 협의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날 확정했으며, 앞으로 양 시도는 이날 논의된 협력과제가 시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진전을 이뤘다.

먼저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지난 2006년 나주 지역 혁신도시가 전국 유일의 시·도 공동 혁신도시로 선정되고 같은 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지난 2019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를 통해 국책 연구기관에 공동 용역을 시행했으나, 발전기금 조성 규모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 5월21일 3개 지자체장 후보가 만나 '광주·전남·빛가람' 협



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전남 대번영 시대를 위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 제공

신도시 상생발전협약식'을 갖고 산업·교통·환경 분야의 주요 상생과제를 실무적으로 협의·추진해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직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나주시가 연 50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성과확산계정과 혁신도시육성계정을 두기로 하는 등 통 큰 결단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조성되는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 광주, 전남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마중

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 범정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절차 진행과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 전략 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군 공항의 면적 조정 및 완충지역 확대, 훈련기능 조정을 국방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화순 동북면은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양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상생의 핵

심은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며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의 현안문제는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를 계기로 큰 진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어 "광주·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으로 광주와 전남이 역사적인 대도약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6' 전국 전시행사 개시

현대차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아이오닉 6의 실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아이오닉 6 서울' 전시를 여의도 더현대 서울 1층 전시장에서 8월 20일까지 연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혁신적인

스트립라이너 디자인과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경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총 4개의 체험형 테마로 구성했다.

아이오닉 6의 감성을 전달하기

위한 스트립라이너 디자인/사운드 체험공간은 디자인 스토리 관람 및 가상현실(VR) 스튜디오 체험, 보스(Bose)의 프리미엄 사운드 청음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 공간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1초 만에 도달하는 아이오닉 6의 우수한 성능 등 실제 운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특징점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탈 LED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약 2분여 간의 공연을 통해 아이오닉 6의 특징인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를 테마로 한 주행 감성을 표현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일과 휴식을 테마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함과 동시에 차량의 기능들을 상세히 체험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도슨트 공간도 준비했다.

듀얼 컬러 앰비언트 무드 램프 체험 공간은 무드램프를 활용해 고객이 직접 조명의 색상을 조합해보고 아이오닉 6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으며, SNS 인증을 통한 사진 인화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앞으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특색 있는 공간에서 더 많은 고객들이 아이오닉 6 차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시를 준비 중이다. /이문수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장을 바탕으로 소비자 이익을 증진 위해 제3자(CG)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정시대, 외장, 창호형제, 외배수 및 마감, 포장계획, 시공을 등의 위에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비자 이익을 증진 위한 것으로 실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